

약속과 제사의 만남 : 족장 언약을 중심으로

우 상 혁

(안양대학교 신학과 교수 / 구약학)

■ 조 록 ■

본 논문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밝히고 아브라함 언약과 제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언약이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약속이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 계약으로 하나님이 계약 이행과 준수 의무가 있다.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축복, 보호, 땅과 자손 등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 내용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뿐이다. 이삭과 아비멜렉은 화평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공동 식사를 하였고(창26.26-33). 야곱과 라반도 언약을 맺은 후에 들기둥을 세우고 식사를 하였다(창31.43-46).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은 약속이나 계약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같은 일정 의식을 동반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일

방적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응답으로서 제의 의식이 동반한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언약을 논할 때는 제의적 관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족장 시대에 나타나는 제단 건립 장소는 네 곳이었다. 족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는 항상 제사를 드렸다. 따라서 족장들이 제사를 지낸 장소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으며,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제사들 드렸다는 것은 언약과 제사가 불기분의 관계임을 말한다.

주제어

아브라함 언약, 족장, 창세기, 제사, 땅과 지순

I.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에 개혁신학의 뿌리를 내린 분 중에 김치선 박사가 있다. 이 분은 “이만 팔천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고 하셨는데,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았던 족장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제사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하여 포로기 이후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진다. 제사가 형식을 갖춘 제의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모세가 만든 성막 때이며, 제도가화된 제사의 모습은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¹⁾ 하지만 일정 격식을 갖춘 제도로서는 아니지만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 족장 시대부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구약에서 제의와 더

1) 족장들이 드린 제단 형식의 제사 방식은 차후 장막 제사에 이어서 성전 제사 형식으로 발전해 가며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를 제의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불어 배놓을 수 없는 주제 중 하나는 언약이며, 이 언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족장들과 관련이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족장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²⁾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³⁾ 본 글에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로 알려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드렸던 제사와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의 관련성을⁴⁾ 살펴려 한다. 언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참여가 필요하다.⁵⁾ 언약을 계약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언약(베리트 בְּרִית)의 어원에 대한 고대 근동학적

2) 최중진은 족장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야곱의 열 두 아들로 정의한다. 최중진, 『구약성서의 족보적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238-239. 하지만 구속적 맥락 혹은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족장이라 함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 형성은 이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땅

과 자손의 약속을 받은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족장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원으로 대접 받을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 역시 이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출2.24 [개정]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 6.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13.5, 11)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출3.6, 15; 4.5), 이는 이 세 명이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 자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한 묶음으로 '네 열조(아보트 nissim)'라고 하는데(출3.6, 15, 16; 4.5), 이 열조가 곧 약속의 족장이다.

3)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약속이기에 족장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대개 아브라함 언약과 제사와의 관련성은 깊지 않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신학을 집대성한 앤더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버나드 W. 앤더슨, 『구약신학』 (서울: 한울출판사, 2001), 174-186.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을 정리한 베르메이랑 역시 아브라함 언약과 선택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할 뿐이다. J. Vermeylen, *Le Dieu de la promesse et le Dieu de l'alliance*, (Paris: Cerf, 1986), 42-44.

5) 언약은 언약의 참여자가 상호 동등할 수도 있고 우열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한 쪽이 능동적이고 다른 쪽이 수동적일 수는 있다.

설명이 있는데, 이런 설명의 공통점은 베리트가 ‘혼자’가 아니라 ‘쌍방의 참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⁶⁾ 베리트의 구약 성경 내 일반적인 용례를 보더라도 베리트는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참여가 있다.⁷⁾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실 때 이들이 보인 공통된 반응이 있다.⁸⁾ 이 반응은 다름 아닌 제사이다.⁹⁾ 본 글에서는 족장들이 세운 제단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족장들의 응답이 제사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과 내용

2.1.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

제사를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웬암은 시나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언약이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혼자 한 ‘약속적 맹세

6) 최종진은 다음과 같이 베리트의 기원을 정리한다. 1) 계약 의식의 식사. 2) 동물을 양분하여 계약자 쌍방이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것. 3) 베리트는 아카디아어 ‘사이에 birit’에서 유래. 최종진, 『구약성서의 족보적 연구』, *op. cit.*, 387-390.

7) 구약에서 사용된 언약의 일반적 의미는 동맹, 협약, 조약과 같이 쌍방 간의 어떤 관계 형성을 가리킨다. 구약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과 관련된 다음의 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창14.13 아브라함과 아모리 족속; 창21.27, 32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창26.28 이삭과 아비멜렉; 창31.44 아곱과 라반; 삼상20.8 다윗과 요나단.

8) 모세 언약은 율법을 매개로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적 계약이며, 다윗 언약 역시 성전 건축이라는 다윗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9) 돔브렐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행동을 응답으로 보지 않고 “땅의 소유권을 공적으로 천명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W. J. 돔브렐, 『언약과 창조: 구약 언약의 신학』 (서울: 크리스찬 서적, 2001), 82.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수용하기 힘들다. 창12.7-8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세겜과 벧엘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곧 이곳을 떠났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의 소유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promissory oath)'라고 한다.¹⁰⁾ 같은 맥락에서 최종진 역시 아브라함 언약은 "원무계약/일방적 계약으로 하나님에게 계약준행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¹¹⁾ 베르메이랑 또한 약속의 무조건적 성격을 강조한다.¹²⁾ 이러한 족장 언약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로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며, 둘째는 시내산 언약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해야 할 주체이다.

2.2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폰 라드는 아브라함 약속은 민족 형성(후손) 약속과 새로운 신 관계의 약속(나는 네 신이 되고자 한다), 땅 점유의 약속이라고 한다. 민족 형성은 애굽에서 이루어졌고 새로운 신 관계는 시내산에서, 땅 점유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폰 라드는 말한다.¹³⁾ 폰 라드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 중 으뜸가는 약속은 땅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민족 형성과 후손의 번창을 포함한다고 보았다.¹⁴⁾ 이런 점에서 폰 라드는 비록 아브라함 약속을 세 개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약속으로 땅과 자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두 해석이 있다. 첫째는 언약의 내용은 축복, 보호, 땅과 자손 등으로 보는 경향이며,¹⁵⁾ 둘째는 땅과 자손뿐이라는 입장이다.¹⁶⁾ 아브라함 언약

10) G. J. Wenham, *Genesis 1-15*,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333.

11) 최종진, 『구약성서의 족보적 연구』, *op. cit.*, 246.

12) J. Vermeulen, *Le Dieu de la promesse et le Dieu de l'alliance*, 45.

13) G. 폰 라트, 『구약 성서 신학 제 1권』 (예관: 분도출판사, 1976), 142-143. 새로운 신 관계는 모세 언약의 전제인데, 폰 라드는 전승사적 관점에 따라서 모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을 연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14) G. 폰 라트, *Ibid.*, 141, 174-175.

15) 엔더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첫 번째 약속(창12.2 큰 민족)과 두 번째 약속(창12.3: 복의 근원), 세 번째 약속(창12.6-7: 땅과 자손) 삼중 약속으로 구분한다. 버나드 W. 엔더슨, *구약신학*, 179-183. 최종진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한 언약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의 중재자로의 약속이 있

의 핵심적 내용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뿐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놓치는 첫째 이유는 창12.2-3([개정]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과 창12.7([개정] ...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12.2-3은 축복의 말씀이고 창12.7은 약속의 말씀이다.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입성 전후로 하신 말씀이기에 이 둘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창12.2-3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창12.4 [개정]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주의 결단을 하였다. 반면, 창12.7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구절 간의 거리는 가깝지만 창12.2-3과 창12.7의 시공간적 거리는 멀다. 창12.7은 창12.2-3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언약 자체가 축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35에서도 아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아곱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며(창35.9), 이어서 그 복의 내용 중 하나로 땅과 지손의 약속을 한다(창35.12). 다른 측면에서 보호와 축복의 매개자를 소개하는 창12.3은 땅과 지손의 약속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서 보호와 축복의 매개 자체가 독립적 약속이라기보다는 땅과 지손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볼 수도 있다.¹⁷⁾ 둘째로 아브

다고 한다. 최종진, 구약성서의 족보적 연구, 235-237. 드 뿌리는 하나님이 아곱에게 한 약속을 땅(창28.13)과 지손(창28.14), 보호(창28.15)로 구분한다. A. de Pury, *Promesse divine et légende culturelle dans le cycle de Jacob I*, (Paris: Gabalda, 1975), 173-180. 베르메이랑은 족장에게 주어진 약속을 땅의 증여(창12.7; 13.14-17; 15.18)와 보호(창 12.3; 28:15), 상속자(창15.3-4)라고 한다. J. Vermeulen, *Le Dieu de la promesse et le Dieu de l'alliance*, 44-45.

16) W. Zimmerli, *Esquisse d'une théologie de l'Ancien Testament*, (Paris: Cerf, 1990), 29; W. J. 뚝브렐, 『언약과 창조: 구약 언약의 신학』, 79; 김영진, 『토라』 (서울: 한들출판사, 2005), 100-101.

17) 창12.2-3은 내용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기에 약속이라

라함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혹은 아브라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언약 곧 족장 언약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족장들의 제사와 약속의 관계에서 설명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동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창15:7 [개정]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 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하나님이라). 창15:7에 따르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수립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어서 족장 시대에 사용된 제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먼저 제사와 관련된 용어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III. 창세기에서 제사와 관련된 주요 표현

3.1. 제단(מִזְבֵּחַ)

제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מִזְבֵּחַ는 ‘희생 제물을 도살하다’는 동사 מָצַח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개역한글에서는 ‘단’으로 주로 번역되었고, 개역개정에서는 대개 ‘제단’으로 옮겨졌다. 제단(מִזְבֵּחַ)은 구약에서 약 403회 나타나며, 창8:12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처음으로 구약성경에서 사용되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함께 사용되는 동사는 대개 ‘건설하다, (집을)짓다’를 의미하는 בָּנָה 이지만, 창35:1처럼 ‘만들다’를 의미하는 נָסַח 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제단 위에는 불과 나무가 먼저 놓이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레1:7-10).

3.2. 돌기둥(מִלְבָּד)

고 할 수 있지만, 언약적 약속은 아니다.

돌기둥은 용도 면에서 회생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분명히 구별된다. 돌기둥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의 성소 개념과 가깝다. 창 28.22에서도 아돔이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아돔은 그 때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다. 이는 아돔이 세운 돌기둥이 성전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돔은 돌기둥을 세운 후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창28.18; 35.14).¹⁸⁾ 돌기둥은 아돔과 라반이 언약을 맺을 때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창31.52).

3.3.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다(קרא: שמך יהוה)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처음 기록은 창4.26에 나타난다. 창21.33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분쟁을 해결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석류나무를 심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이외에도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제단을 쌓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다. 창26.25에 따르면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로 미루어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예배 의식과 연관이 있다.¹⁹⁾

IV. 족장들의 제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낯선 땅이었고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가나안 땅 여러 곳에 제단을 세웠다. 족장들이 드린 제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

18) 출30.25-30에 따르면 기름은 제사 도구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며 기록하게 한다.

19) G. von Rad, *Genesis*, (London: SCM Press, 1985), 237.

와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정확히 세겔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אֵיל שֵׁט)가 있었던 곳이다(창12.6).²¹⁾ 모레(מֹרֵי)는 가르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이다(창12.6). 하나님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자식도 없이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쌍무적이 아니라 일방적 약속이다. 특별히 눈여겨 볼 부분은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점이다.²²⁾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약속에 대한 응답이다. 베스트만 역시 아브라함이 세겔에 세운 제단을 예배 처소(cult center)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단 건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²³⁾ 하지만 제단의 기능은 앞서 본 대로 희생 제물을 위한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제사인 동시에 반응이다.

4.1.2. 세겔과 아곱 제단: 창33.20

21)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겔에서 하였던 약속은 여호수아의 언약의식에서 상기된다. 세겔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여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길 것을 권면하여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는가를 간략히 소개한다(수24.2-18).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을 버릴 것을 촉구하며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삼아 여호와와 언약을 세운다(수24.19-28).

22) C. Westermann, *Genesis 12-3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155. 이 제단이 실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G. J. Wenham, *Genesis 1-15*, 280.

23) 칼빈은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 J. Calvin, *Genesi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578 1992), 353.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야곱도 세겔에 제단을 쌓았다. 밋단아람으로부터 돌아 온 야곱은 세겔 땅 맞은 편에 머물며 허물 사람들로부터 조그만 땅을 구입한 후²⁴⁾ 그곳에 천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다(창33.18-20).

창33.20 ^{וַיִּבְנֶה יַעֲקֹב מִזְבֵּחַ לַיהוָה בְּאֶרֶץ מִיטְדָּן אֲרָם} [사역]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을 불렀다.

야곱은 세겔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세겔에서 야곱은 디나와 그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창34). 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겔을 떠나서 벧엘로 가라고 명한다(창35.1). 야곱이 세겔에 단을 쌓을 때는 신의 현현도 축복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냥 야곱이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세겔 성 앞의 발을 사서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 야곱은 북쪽 지파들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33.20 내용은 단순한 편이다. 아브라함이 세겔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비해서 간단하다. 아브라함 제단은 신의 현현과 약속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야곱의 제단은 단순하게 취급된다.

4.2 벧엘

벧엘은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처음으로 제단이 세워지고 이어서 야곱도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후 벧엘은 성소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벧엘은 실로에서 남쪽 방향에 있으며 남북 분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길목이었다. 사20.18, 26-28; 21.2에 의하면 사람들이 벧엘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에게 지문을 구하였다. 삼상10.3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한다.²⁵⁾ 언약궤도 벧엘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

24)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요셉의 뼈를 야곱이 허블 자손에게서 구입한 땅에 장사지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다(수24.32).

다. 남, 북 분열 이후에 여로보암은 베엘에 에루살렘과 경쟁하는 성소를 세우기도 하였다.

4.2.1. 베엘과 아브라함: 창12:8; 13:3-4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세겜을 떠나서 베엘 동편, 베엘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아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창12:8 **וַיֵּלֶךְ אַבְרָהָם וְהָיָה לְמַדְבָּר בְּעֵינֵי מְדִינַת כְּנָעַן וַיִּבֶן מִזְבֵּחַ וַיִּקְרָא בְּעֵל וַיֵּלֶךְ אֵלָיו וְהָיָה לְמַדְבָּר בְּעֵינֵי מְדִינַת כְּנָעַן** [사역]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부터 베엘 동쪽의 산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베엘 서편, 아이 동편 천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리적 위치를 엄격히 구분하면 아브라함이 단을 세운 곳은 베엘이 아니라 베엘과 아이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이 베엘 중심이 아니라 아이 방향에 위치한 베엘 동편 외곽으로 볼 수 있다.²⁶⁾ 아브라함은 베엘에 제단을 쌓은 후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내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후 네게브를 거쳐 다시 베엘 제단에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창12:8; 13:4).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지손의 약속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4.2.2. 베엘과 야곱: 창28:22; 35:7; 35:14

창세기에 따르면 야곱은 베엘에서 세 번의 제사를 지냈다. 첫 번째 제사는 야곱이 에서의 낚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베엘에 세운 돌기둥이며(창28:22),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운 제단이며

25) 드 보는 이들을 베엘로 순례가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아마도 이들이 손에 염소 세끼, 떡, 포도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 같다. R. de Vaux,

Les institutions de l'Ancien Testament II, (Paris: Cerf, 1961, 1990), 118.

26) 창13:3에서도 베엘에 도착하여 제단에 이르렀다고 한다.

(창35.7), 세 번째는 역시 밧단아람에서 돌아 온 후에 세운 것으로 첫 제사처럼 돌기둥이다(창35.14). 창35.7과 창35.14는 밧단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세운 것으로 비슷한 시기 혹은 동일한 시기로 볼 수 있다.

7. 창28.22

창28.22 ^{וַיִּשְׁכַּח אֱלֹהִים אֶת יַעֲקֹב וַיֹּאמֶר אֵלָיו בְּנֵי אֱלֹהִים הָיָה לְךָ וְעַתָּה אֲרִיבָה לְךָ אֶת הָאָרֶץ} [사역]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것 중에서 십분의 일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창28.10-22에서는 야곱이 베엘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던 중 한 곳에 도착하여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창28.10-11).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창28.13)”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어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창28.13)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은 세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창12.7)과 베엘세바에서 이삭에게 한 약속(창26.3-4, 24)과 동일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연장선에 있음을 말한다.²⁷⁾ 드 꿔리는 창28.13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야곱이 누워 있는 땅으로 베엘 인근에 국한된다고 한다.²⁸⁾ 하지만 야곱이 누워 있는 곳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베개로 삼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그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약속과 십일조를 하겠다고 한다(창28.22).²⁹⁾

27) C. Westermann, *Genesis* 12-36, 455.

28) A. de Pury, *Promesse divine et légende culturelle dans le cycle de Jacob* I, 177.

29) 창28.19(וַיִּשְׁכַּח אֱלֹהִים אֶת יַעֲקֹב וַיֹּאמֶר אֵלָיו בְּנֵי אֱלֹהִים הָיָה לְךָ וְעַתָּה אֲרִיבָה לְךָ אֶת הָאָרֶץ) 그는 그 곳을 베엘이라 불렀다) 에서 야곱은

L. 창 35.7

창35.7 וַיֵּלֶךְ יַעֲקֹב מִבְּרָחָהּ אֲדוֹמִי מִן הַגִּלְגָּל בְּנֵי יִשְׂרָאֵל וְכָל נַפְשָׁם אִתּוֹ
 고퍽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한
 나뉘미 나타나신 것틀 생각하고 그 곳 이름을 쉰 베델이라고 히였다.

아픔의 두 번째 벤엘 제시는 빛단아람으로부터 돌아 온 이후이다. 처음에는 돌기둥을 세우고 기쁨을 부었다면, 두 번째는 제단을 세웠다. 아픔은 벤엘에 제단을 쌓으러 가기 전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아픔의 믿음은 엿볼 수 있다. 특이한 게 있다면 이방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은 점이다. 세겜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사를 지낸 곳이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지낸 장소와 아픔이 신상을 묻은 장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는 일종의 통과 의례를 위한 장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서 예전의 풍습을 버리는 것처럼 아픔도 이방신상을 땅에 묻음으로 이방의 풍습을 버리는 것이다. 창35.7의 제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다(창35.1).

차 35.14

창35:14 וַיִּבֶן מַצֵּבָה בְּמִקְדָּם אֶת־זֵכֶר אֱלֹהֵי יִשְׂרָאֵל וַיִּקְרָא עָלָיו נֶצֶחַ עָלָיו שְׁמוֹ וַיִּזְכֹּר אֱלֹהֵי יִשְׂרָאֵל מַצֵּבָה אֵלָיו וַיִּסַּד עֲלָיו יָסֵד וַיִּבֶן מַצֵּבָה בְּמִקְדָּם אֶת־זֵכֶר אֱלֹהֵי יִשְׂרָאֵל וַיִּקְרָא עָלָיו נֶצֶחַ עָלָיו שְׁמוֹ וַיִּזְכֹּר אֱלֹהֵי יִשְׂרָאֵל

그가 비석을 세운 곳을 «엘의 집»이라고 불렀다(참, 창28.17). 엘은 가나안 신들 중에서 우두머리였고 베엘은 이스라엘 민간 신앙에서 오랫동안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엘레판틴에서 발견된 문서와 암5.4와 렘48.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R. de Vaux. *Les institutions de l'Ancien Testament* II, 119.

아굽의 세 번째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35.14은 아굽이 돌기등을 세웠다고 한다. 창35.7의 제단과 창35.14의 돌기등이 동일한 사건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두 사건을 동일선에서 볼 수 있다. 창35.14의 돌기등 세움은 신의 현현(창35.9)과 지손과 땅의 약속(창35.11-12) 그리고 돌기등(창35.14)이라는 삼 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창28.18과 동일한 구조이다. 창28.18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창28.12), 지손과 땅의 약속(창28.13-15), 돌기등 세움(창28.18)이라는 삼 단계 과정이다. 반면 창35.7에서 아굽이 제단을 쌓은 것은 현현과 약속의 과정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창35.1)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4.3. 헤브론³⁰⁾

세겔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땅과 지손 번창의 약속을 한다. 이때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 단을 쌓았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땅의 약속과 자손 번창을 약속하자, 아브라함은 벤엘 근처를 떠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세 번 등장한다.

4.3.1. 헤브론과 아브라함

ㄱ. 창13.18

창13.18 ^{וַיֵּלֶךְ אַבְרָהָם וְשָׂרָה אִשְׁתּוֹ וְיִצְחָק בְּנֵהוּם אֵלֶיּהָ לְבֵית עֵלֹנָה} [지역] 아브라함은 천막을 쳤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와서 거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지손에게 주리니 영원

30) 기럇아르바, 헤브론 기럇아르바는 헤브론을 가리키는 지명이다(창35.27). 창23.19에 의하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한다. 반면 창13.18에 의하면 마므레는 헤브론 내에 있는 한 지명이다. 마므레라는 명칭은 창세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히 이르리라(창13.15)”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된 땅의 표시로서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가서 단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제단 설립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다. 마므레는 아브라함(창14.13), 이삭(창35.17)의 거주지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창23.19; 25.9),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창49.31), 야곱(창50.13)은 모두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묻히었다.³¹⁾ 심지어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그의 후손들이 그를 헤브론 마므레에 묻힌다(창50.5-6).³²⁾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손의 변창과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던 족장들이 모두 이곳에 묻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족장들이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한 집착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그리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조상들이 묻힌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세 명의 방문객을 맞기도 하였다(창18).

ㄴ. 창15.18

창15.18 וַיֹּאמֶר יְהוָה אֲבֹרָם בְּרִית לְאֹמֶר לְעָרְכָּא מִמֶּנִּי אֲחִיזָאָרָא בְּיָמֵי
וַיֹּאמֶר יְהוָה אֲבֹרָם בְּרִית לְאֹמֶר לְעָרְכָּא מִמֶּנִּי אֲחִיזָאָרָא בְּיָמֵי
[사역]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말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까
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³³⁾

창15.5-7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지손을 약속하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햇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을 치른다(창15.17). 하

31)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구입한 땅이다. 웬암은 헤브론 마므레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적 장소라고 하며, 이 장소의 중요성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웠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G. J. Wenham, *Genesis 1-15*, 299.

32) 마므레의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들이 묻힌 선산이라고 할 수 있다.

33) 이 구절에 언급된 땅의 크기와 솔로몬 통치 때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와 비교할 만하다(왕상4.21; 8.65).

지만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라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창13장과 14장의 연장선에서 볼 때에, 이 장소는 헤브론이다. 헤브론의 두 번째 제사에서는 제단이나 돌기둥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기에, 아브라함이 이미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볼 수 있다(창13.18). 창15.18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창15.7).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곧 언약임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 성격이 아니다. 제사가 그 약속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제사는 결코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제사는 약속에 대한 응답일 뿐이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을 하시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주체이다.

㉔. 창17.8

창17.8 וְעָלְמָא לְאֵלֵיהֶם וְהָיָה לְךָ וְלְנֶכְדְּךָ אֶת הָאָרֶץ כְּעֹבְדֵי אֱלֹהֵי אֲרָם
 [사역] 내가 네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17.8은 창17.7([개역]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와 함께 읽어야 한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 올람(영원한 땅)은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창17.8)’로 주는 것이 곧 ‘영원한 언약 בְּרִית(창17.7)’이다. 창17.18 역시 제사와 관련된 직접적 표현은 없다. 창17.8 역시 창15.18처럼 창13.15의 연장선에서 읽혀져야 한다. 창17.8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점은 바로 뒤에 등장하는 할례와 관련성 여부이다. 할례를 땅과 자손의 약속과 연결 여부에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만약 연관이 있다면, 할례는 땅과 자손 약속의 조건으로 보

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브라함 언약은 쌍무적 혹은 조건적 언약이 된다. 그렇지 않고, 땅과 자손의 약속과 할례를 서로 구별되는 언약으로 볼 수도 있다. 창17.14([개정]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에 따르면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한다. 이 절에 따르면 할례의 준수 여부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³⁴⁾ 이런 점에서 할례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속받는 자의 표시이지, 할례를 땅과 자손 언약의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17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할례는 포피 제거라는 의무와 불이행시 백성으로부터 제거라는 벌을 내포하고 있기에, 할례 자체를 독립된 언약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할례를 땅과 자손의 약속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기도 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할례 준수는 땅의 약속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따라서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권리 행사의 자격이 할례라면, 할례가 약속의 조건이지 않느냐이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분명히 조건적이다. 이런 영향 하에 막연히 언약은 모두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모세 언약의 조건적 성격은 신명기 28장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조건이라는 명백한 구절이 없다. 따라서 할례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전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다른 구절에서 할례는 전혀 언급 되지 않았고 창세기 17장에서도 할례가 언약의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세겜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후 이삭과 야곱에게도 줄곧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을 한다.³⁵⁾ 이러한 조건 없는 약속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12.1)"는

34) 할례는 조건이 아니라 계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이다. 버나드 W. 엔더슨, *구약신학*, 175; 최종진, *구약성서의 족보적 연구*, 253.

35) 앤더슨은 모세 언약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을 정확히 지적한다. 버나드 W. 엔더슨, *구약신학*, 175. "... 모세 계약은 은혜의 계약이지만 조건의 특징을 갖고 있다. 모세 계약은 인간의 결단을 요청하고 인간의 자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창12.3)"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례를 지키지 않아서 백성에서 끊어지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할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명과 지손 약속이 할례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6)

4.4. 브에세|바

맹생세의 우물(혹은 우물)은 아미피와 함께 아미피테의 근대 장관
비굴이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은 곳이다(창21:22-31).

4.4.1. 브엘세바와 아브라함: 창21.33

이미벨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지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다.

창21.33 וַיִּבְרָךְ אֱלֹהִים וַיֹּאמֶר יְהוָה אֵל עוֹלָ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다. 나무를 심었다.

창21:33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 족장 시대 때 언약과 관련된 풍습을 엿보게 한다. 사람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은 행동의 결정적 결과를 강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 계약은 인간의 허물과 죄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백성들의 응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겠다는 하나님의 충실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계약은 일방적이다.” 이어서 그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결되었고 아브라함은 수동적 수령자”라고 하며 아브라함 언약은 의무 사항이 없

는 임박적 약속이라고 한다. 버나드 W. 앤더슨, *구약신학*, 176.

36) 렌토르프는 할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협상자인 아브라함에게 의무라고 한다. 그는 할레와 언약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R. Rendtorff, "Noah, Abraham and Moses: God's Covenant Partners," E. Ball (ed.), *In Search of True Wisdom*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31.

사이에도 언약을 체결하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아굽이 라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돌기둥을 세운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창31.43-46).

4.4.2. 브엘세바와 이삭: 창26.25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은 두 번(창26.3-4, 24), 제단을 쌓은 것은 한 번(창26.25)으로 기록한다.

창26.25 וַיִּבֶן אִשָּׁק אֶת־הַמִּזְבֵּחַ וַיִּקְרָא בְּשֵׁם יְהוָה וַיִּזְכֹּר אֱלֹהֵי אִשָּׁק וַיֹּאמֶר אֱלֹהֵי אִשָּׁק וַיִּזְכֹּר אֱלֹהֵי אִשָּׁק וַיֹּאמֶר אֱלֹהֵי אִשָּׁק [사역] 그리
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와 이삭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
고 거기에 그의 천막을 쳤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고 하시며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한다(창26.2-4). 이때 이삭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없다. 이삭이 제단을 쌓은 때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후이다(창26.25).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자손의 약속을 한다(창26.24). 창26.24와 창26.3-4의 약속은 내용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이삭에게 연속적으로 있기에, 브엘세바의 제단은 이삭이 그랄 땅과 브엘세바에서 받은 약속의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웬암은 이삭이 제단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⁷⁾

4.4.3. 브엘세바와 아굽: 창46.1

아굽은 그의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회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아굽에게 나타난다(창46.1-4). 이때 창46.1은 아굽이 제사를 드렸다고 했다.

창46.1 וַיִּזְכֹּר אֱלֹהֵי אִשָּׁק וַיֹּאמֶר אֱלֹהֵי אִשָּׁק [사역] 그 이스라엘이 그에 속한 모든 소유

37) G. J. Wenham, *Genesis 16-50*, 192.

를 가지고 브엘세바에 도착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창26.25에서 이삭이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상을 보여주며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다시 돌아 올 것이라고 한다(창46.3 [개정]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³⁹⁾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급은 없지만, 야곱에게 보여준 이상은 이에 대한 충분한 암시가 있다. 웬암은 창46.2-4의 이상은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게 하였던 약속의 절정으로 마지막으로 야곱에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⁴⁰⁾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미 언급된 지순과 땅의 약속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기에 웬암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V. 족장 언약과 제의

이삭과 아비멜렉은 화평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공동 식사를 하였고(창

38) 삼상8.1-2에 의하면 사무엘은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다. 아마도 당시 그곳에 제단이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암5.5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벤엘, 길갈,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야훼를 찾으라고 외친다.

39) 야곱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창15.13-14).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창26.3-4).

40) G. J. Wenham, *Genesis 16-50*,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4), 440. 사르나도 그의 후손이 돌아오는 것은 땅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N. M. Sama, *The JPS Torah Commentary Genesis*,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313.

26.26-33). 아굽과 라반도 언약을 맺은 후에 돌기둥을 세우고 식사를 하였다 (창31.43-46).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은 약속이나 계약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같은 일정 의식을 동반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응답으로서 제의 의식이 동반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언약을 논할 때는 제의적 관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족장 시대에 나타나는 제단 건립 장소는 네 곳이었다. 족장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약속을 받을 때는 항상 제사를 드렸다. 따라서 족장들이 제사를 지낸 장소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다. 물론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언약과 제사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표는 족장들의 제사와 땅과 자손의 약속을 성읍별로 구분하였다. [땅과 자손]에 ×가 있는 곳은 제사는 있지만 약속은 없는 경우이며, [땅과 자손]에 O가 있는 곳은 제사와 약속이 함께 있는 경우이며, [땅과 자손]에 △가 있는 경우는 제사는 있지만 땅과 자손의 약속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경우이다.

	세겜	벤엘	헤브론	브엘세바
아브라함	땅과 자손 O 창12.7	땅과 자손 ×	땅과 자손 O 창13.15; 15.18; 17.8	땅과 자손 ×
이삭				땅과 자손 O 창26.3
아굽	땅과 자손 ×	땅과 자손 O 창28.13; 35.12		땅과 자손 △ 창46.1

세겜을 제외하고 족장들이 약속을 받았던 장소는 각 족장들의 주요 활동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주요 근거지는 헤브론과 그 인근이며, 이삭의 주요 거주지는 브엘세바와 그 아래 네게브 지역 브엘라헤로이이며(창24.62), 아굽은 주로 북쪽 벤엘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 지역과 약속을 받은

장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족장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들에게 땅을 주고 지손 번창 약속에 대한 답례의 형식이었다. 창12.7의 경우를 보면, 제단 설립과정은 3단계를 이룬다. 첫째는 하나님 현현(מַלְאֲכֵי יְהוָה נִרְאִים) 그리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둘째는 약속(נָתַן יְהוָה אֶת הָאָרֶץ לְאַבְרָהָם) 내가 너의 지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셋째는 예배(הָאֱלֹהִים מִצֵּדָה)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족장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낯선 땅이었고 이미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 그는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족장들이 이동할 때마다 끊임없이 땅과 지손을 약속하였다. 웬암의 말대로 창세기에서 땅과 지손의 약속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⁴¹⁾ 하지만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제의 또한 굶직한 흐름을 형성한다. 창세기에 족장들이 남긴 발자취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제사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VI. 나오는 말

지난 세기 놀라운 성장을 하였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재도약을 위해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원칙과 중심은 예배이다.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を 듣고 예배드리는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예배 중심적 삶을 세워가야 한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의 큰 기둥이며, 대신 교단을 세운 김치선 박사는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에 관한 연구’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구를 마치면서 김치선 박사의 이만 팔천 동네에서 우물을 파리는 말씀은 족장들이 기는 곳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41) G. J. Wenham, *Genesis 1-15*, 279.